

## 잊지 못할 물 한 모금

김 봉수

“신고합니다! 소방사 김봉수는 2010년 10월 21일부로 OO소방서 OO 119 안전센터 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방관입니다. 2010년 10월 21일은 제가 처음 소방공무원으로서 제복을 입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소방관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서툴거나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보인 저에게도 소방서에서의 업무는 그 강도와 책임이 너무나도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있어 똑같은 매뉴얼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표준작전절차라는 지침은 존재함). 같은 교통사고 구조 출동을 나가더라도 사고 장소, 차량의 충돌방향, 운전자의 신체조건이나 부상부위 하다못해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현장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꼼직하고 처참한 현장, 현장 상황에 맞는 처치 방법을 익히는 것, 누군가의 목숨과 직결되는 일들이기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심리적 부담감들은 당시 소방관으로서의 첫발걸음을 내딛은 저에게 매우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햇병아리 소방공무원인 제가 좌충우돌 할 적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 11월. 부쩍 쌀쌀해진 초겨울 날씨의 어느 날, 소담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저희 팀원들은 재래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119 Fire Road Day'라는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위해 관내에 소재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대원들은 홍보방송을 틀고 시장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며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과 화재예방을 위한 행동들에 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한참 홍보활동을 하는 중 우리는 한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곳

에서는 여러 가지 잡화와 일회용품등을 팔고 있었는데, 일행을 지휘하시던 팀장님이 다짜고짜 그 가게로 들어가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가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슬그머니 따라가서 들으니 팀장님께서 “지금 선생님 가게에는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를 내뿜게 되는 상품들이 많고, 가게 내부의 진열장 배치가 복잡하여 연기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었을 때 대피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상가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는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화재감지기도 노후되어 화재발생시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고장·파손된 소방시설을 수리 및 보수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장은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현재 수리·보수할 돈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봉투를 팀장님 손에 억지로 쥐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은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조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계고하였고, 꼭 수리를 하겠다는 가게 주인의 약속을 받은 후 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며칠 뒤 관계법령과 자인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 다시 한 번 그 가게를 방문하였고 다행스럽게도 가게의 소방시설들은 모두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 팀이 야간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시곗바늘이 자정을 넘어가는 그때, 정적을 깨며 출동방송 지령이 들렸습니다.

“왜애애애앵, 화재출동! 화재출동” “조대 화재출동입니다. 장소 OO동 XX-XX번지 화염과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 인명피해 우려, 신속출동해 주기 바람!!”

정신이 확 들며 순식간에 제 심장은 쿵쿵쿵쿵 요동치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화재출동은 있었지만 단순한 소각이나 잡목, 창고 화재가 대부분이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화재출동은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방차에 탑승한 후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왜 그렇게 방화복 지퍼는 올라가지 않는지, 공기호흡기 끈은 왜 얼른 보이지 않는지.....한참을 허둥대고 있을 때 소방차는 벌써 현장에 도착해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장소에는 지금이 대낮인가 싶을 정도로 새빨간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릴 듯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화재장소는 불과 며칠 전 'Fire Road Day' 캠페인 때 팀장님이 소방시설을 지적하였던 바로 그 상가였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훈련받았던 대로 소방호스를 짚어지고 헉헉 거리며 현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현장과의 거리가 20m에서 15m, 10m 앞까지 다가오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열기가 제 몸을 덮쳤습니다. 열과 화염을 막는 방화복을 입고 헬멧, 장갑, 장화까지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녹아내리게 할 것 같은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으며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때 앞에 계신 팀장님께서 외쳤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뒤에 딱 붙어." 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며 우리는 화마(火魔)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뜨거운 열도 열이지만 시커먼 연기는 제 앞을 단 10cm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無)의 공간에서, 시각은 차단되었지만 촉각(뜨거운 열기)과 청각(부서지고 무너지는 소리)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앞에 계신 팀장님과 저는 호스를 꼭 잡고 내부를 향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 때 바로 머리 위에서 우당탕하며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열기가 우리 쪽을 덮쳤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는 순간에도 팀장님께서 신속하게 방수(防水)하여 화마를 잡고 계셨습니다. 그 때 건물 천장에 뿌려진 소방용수는 다시 우리 몸에 뿌려졌고 방화복 사이로 소방용수가 스며들었습니다. "앗 뜨거!" 차가운 소방용수가 마치 끓인 물처럼 뜨겁

게 달궈져 제 몸에 끼어어졌습니다. 현장은 화염과 연기, 뜨거운 수증기와 내부 잔해들로 아수라장과 같았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센터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탰고 제 눈에 그들은 영웅들로 보였습니다.

대원들의 신속한 진화작업으로 불길은 점차 사그라졌고, 큰불을 잡은 우리 대원들은 남은 잔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남은 잔화(殘火)들은 동료들에게 맡기고 잠시 나가서 숨 좀 돌리자고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안면에 쓰고 있던 면체를 벗으니 너무나도 시원한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간은 이미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니 얼굴은 그을음투성이였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팀장님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소방관님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소방시설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저와 제 가족들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가게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라며 우리들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소방관이라는 자부심과 뿌듯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 때 옆에서 팀장님께서 “너도 이제 진정한 소방관이다.”라고 웃으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낡은 바가지에 물을 한잔 떠 주셨습니다.

그 낡은 바가지에 담겨있던 시원한 물 한잔은 아마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한 모금의 물맛이 될 것입니다.